



색상과 심리 ③

색의 상징 (Color Symbolism)_2

+ 김용숙 백석문화대 스마트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겸임교수

- ①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 ② 색의 상징(color symbolism)_1
- ③ 색의 상징(color symbolism)_2
- ④ 생활에서 즐기는 색(color coordination)

최근 후반작업 뿐 아니라 촬영단계에 있어서도 색이 주는 느낌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색의 기술적인 면보다 색 자체의 의미와 색이 주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후반에서 색을 다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주

지난 글에서는 유채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색에 해당하는 빨강, 노랑, 파랑(남색)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1차색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2차색인 주황, 초록, 보라(자주)와 갈색, 무채색인 흰색, 검정색, 회색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주황'



주황은 빨강과 노랑을 혼합한 색으로 두 색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활발하고 화려하며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다. 또 두 색이 가진 본래의 성질이 적당히 누그러져 나타나기도 하는데, 빨강의 강열함은 따뜻함으로 노랑의 불안함은 편안함으로 바뀌어 주황에 묻어난다. 때때로 두 색의 교량적 역할로서 정열과 직관을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주황은 기쁨, 쾌락, 경쾌함, 무사태평, 긴장 이완을 나타내며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것, 답답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색의 특징이다. 원초적인 면에서 주황은 일몰의 색이며(새벽녘의 상징색은 분홍과 보라 계열이다), 장려함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주황은 사람들에게 태양의 따뜻한 빛을 연상시키며, 열대의 과일과 이국적인 꽃과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복돋우므로 안식과 여유를 주는 색이다. 단적인 예로 해 질 무렵 주황빛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황은 일몰의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주황은 사치를 부리지 않고 얌매임 없는 환경에서 인생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즐긴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도 쓰이는데, 특히 동양권 중 중국의 전통에서 사랑과 행복을 나타내는 주된 상징 중의 하나이다. 주황은 고대 이집트와 유대 신비주의의 전통적 사상에서 장려함을 나타내는 색이었다.

주황은 비록 빨강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활기차게 만들고 즐거움을 자극하기도 한다. 또, 생명력이 넘치는 색으로 정력적인 활동성과 함께 창조성과 포부감을 돋우기도 한다. 그리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물, 식물, 주위의 물체들을 보호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주황은 사람의 감성, 감정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장벽이 생겼을 때, 주황을 활용하면 자신 안의 열정을 발견하고 자신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황은 독단적, 독선적, 행동적인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성을 배가시키므로 적당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쉽게 싫증을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주황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의 색으로 '영양분의 색'이라 불린다. 실제로 주황이나 주홍은 다른 색들에 비해 식욕을 보다 강하게 자극한다. 그리고 주황빛의 과일은 각기 독자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복숭아는 불사, 또는 장수를 상징하며, 오렌지는 기쁨과 태양의 힘을 나타낸다. 특히 살구는 이집트 여왕의 문장을 상징한다. 현대생활에서 주황은 식생활, 주거환경, 따뜻함, 쾌적성, 안전을 염두에 두는 이차적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깊은 색으로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된 감성이나 감정을 이끌어 내고 편안함과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최근 도시의 상업적인 간판이나 디자인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좁은 장소나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실내에 주황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시골풍의 느낌을 주는 테라코타(terra-cotta, 점토로 구워낸 토기류로 차분한 흑갈색)의 주황은 전통적인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이다.



건축물에서 보이는 주황색 계열의 색들-주황색 계열과 초록색 계열의 조화는 빨강과 초록만큼이나 어울림이 좋은 배색이다



주황 계열의 색에 회색을 더하면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황의 생리적 영향

- 식욕 조절 증추가 자극되어 식욕이 왕성해진다.
- 따뜻한 계열의 주황색과 차가운 계열의 파랑색이 결합되면 사교적이며 외톨이로 지내는 안정감, 고요함, 침착성 등의 감각이 발달하게 된다.
- 나른함이 유발되어 잠이 들 가능성이 증가한다.
- 혈류의 속도가 감소한다.
- 면역계를 자극하여 치료에 도움을 준다.

주황이 지닌 의미

긍정적 (positive)	부정적 (negative)
관용	대신하는
상냥한	둔감한
용감한	무모한
자랑	건방진
온난한	낭비
자유	허영

성숙한 인간의 향기 '갈색'



갈색은 두 가지의 원색이 아닌 세 가지의 원색을 섞어서 만든 색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3차색이다. 즉, 갈색은 주황에서 명도를 낮추어 주황보다 어둡게 한 색이다. 상징의 면에서 보면 갈색은 주황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지만 좀 더 안전하고 냉정하며 차분하다. 갈색은 원래의 주황색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함과 우호적인 생각을 나타내며 좀 더 어두운 색조가 되면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훌륭한 가치를 시사한다. 공공연하게 갈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미가 없고 검소하며 융통성이 부족하지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실함과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갈색은 어려운 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됨을 뜻한다. 갈색은 쾌적함과 호화로움을 상징하고, 향기가 좋고 맛이 좋은 음식을 연상시킨다. 이는 과거 고급 음식이었던 초콜릿이나 커피, 홍차 등이 갈색을 띠고 있고, 맛과 향이 뛰어나 기분을 돋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갈색은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의 색이기도 하여 비옥함, 잘 마른 나무의 힘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갈색이 지닌 가장 좋은 이미지는 진흙 속에서 백합이나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근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건강상 해롭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햇빛에 몸을 갈색으로 그을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을린 피부가 건강하고 혈액이 좋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초콜릿이나 홍차, 커피의 짙은 갈색은 사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학습적 반응이다. 이와 유사한 반응으로 어린이보다 성인이 동이나 금속의 광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갈색은 느린 파장을 지니고 있어 무겁고 까다로운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도 많이 가지고 있다. 갈색은 이성(異性)에 대한 거부나 활력과 생명력의 감소를 뜻하며, 죽음과 부패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부터 화가들은 그림 속에 고요함을 표현할 때 갈색을 썼다. 그리고 프랑스어의 'brun'은 영어의 'brown'에 해당되는 말로, 구슬픈이나 둔함, 음침한 기운을 뜻한다. 최근 영어의 속어에서 쓰이는 'browned off'는 '진절머리가 나서', '화가 나서'라는 뜻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염세적이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붉은 갈색의 벽돌은 내구성



먹을거리와 관련이 있는 갈색은 대체로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과 연관된다

이 있어 보이고 안전하며 소박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갈색은 부패의 색이기도 하다.

갈색에서 맨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 중 하나는 실용성이다. 이는 갈색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갈색의 흙으로 집을 짓고 불에 구운 열은 갈색의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갈색이 주는 튼튼함과 실용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다.

갈색에서 맨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 중 하나는 실용성이다. 이는 갈

갈색이 지닌 의미

긍정적 (positive)	부정적 (negative)
학문에 정진하는	춤추는
열심히 하는	완고
위로	의기소침
실용적	혹사당하는
충실	희생물



붉은 갈색의 벽돌은 내구성이 있어 보이고 안전하며 소박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갈색은 부패의 색이기도 하다.

색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갈색의 흙으로 집을 짓고 불에 구운 열은 갈색의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갈색이 주는 튼튼함과 실용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다.

‘초록’ 자연으로 돌아가다



초록은 노랑과 파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랑이 통찰력과 직관력을 높여주는 한편 노랑은 명석함과 낙관성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초록을 몸에 걸치면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모두가 풍요로워지며 어떤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항상 이상을 추구하고 노력한다. 또 초록은 사물을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므로 이 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문제의 양면을 고루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 부정의 감정을 두루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초록은 봄에 새롭게 솟아나는 새싹의 연두색에서부터 늦여름 무성한 숲의 진초록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색을 포괄한다.

즉 초록은 자연의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색이며 자연다운 색이다. 따라서 초록은 우리에게 생명과 휴식, 위안을 주고 차분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인간의 정신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또한 초록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눈에 가장 편한 색인데, 인간이 이 색을 볼 때는 안구의 망막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녹색(green)이라는 말이 환경이나 자연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제품 광고 전략으로써 자연보호로 내세우고,



인간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편안함을 느끼려 한다



초록이 가진 조화로움은 우리들을 차분한 기분으로 만들어 준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등의 슬로건으로 녹색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초록은 우리에게 생명과 휴식, 위안을 주고 차분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인간의 정신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초록은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의미하며 성장, 재생, 치료의 색이기도 하다. 심신이 지친 사람들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손실된 생명과 에너지를 보충하고 재생, 치료하고자 함이다. 한편 안전색채(安全色彩)의 관점에서 보면 초록은 안전과 진행 및 구급·구호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피 장소나 그 방향, 비상구, 진행 신호기, 구급상자, 보호 기구 상자, 들 것의 위치, 구호소 등의 표지로 사용된다.

초록은 노랑과 그 반대색인 파랑을 섞어서 만든 2차색으로 균형이 아주 잘

잡힌 조화로운 색이다. 초록이 가진 조화로움은 방의 분위기는 물론 방을 이용하는 사람까지도 조용하고 차분한 기분으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서재나 사무실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옛날에는 배우들이 공연 중 잠시 머물던 극장의 휴게실을 ‘그린 룸(green room)’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방이 초록색으로 꾸며진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 초록색의 장식은 무대 조명 때문에 피곤해진 배우들의 눈을 쉬게 하고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혀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록은 융통성이 큰 색이므로 색채 설계에서 여러 가지 톤이나 색조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 또 자연계와 같이 주거 안에 서도 여러 색과 서로 잘 어울림으로써 실내의 기운을 복돋우는 효과가 있다.

초록의 생리적 영향

초록 계통의 색에 둘러싸여 있으면 인체 내에서 다 음과 같은 유익한 신진대사 작용이 일어난다.

-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감소한다.
- 호흡진, 설사, 위장질환 등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고 지속 기간이 감소한다.
- 비만세포를 안정시킨다.
-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초록이 지닌 의미

긍정적 (positive)	성장	풍요로운 결실	관용
부정적 (negative)	붕괴	썩	의심
긍정적 (positive)	재능, 재주가 있는	신선	행운
부정적 (negative)	질투	부패	불운
긍정적 (positive)	아낌없는	애정어린	
부정적 (negative)	탐욕	선망	

‘보라’와‘자주’로 매력을 발산하라



보라와 자주는 안료(물감)의 비율로 보면 색상의 차이가 있지만, 두 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거의 같으므로 동일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보라와 자주를 구성하는 색상은 스펙트럼 상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반된 성질을 가진 빨강과 파랑이다.



그러나 이 두 색의 혼색인 보라와 자주는 구성색인 두 색과 심리적, 감정적 면에서 매우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즉 상반된 두 색을 적절히 아우르고 있으므로 정신과 감정, 신성과 육체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러한 까닭에 보라와 자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과 조화를 꾀하기에 좋은 색이다. 심리적으로 보라와 자주는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높은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보라는 신성하고 고귀한 색이다. 오래전부터 자주색은 부귀와 기품의 상징이었으며 왕후의 색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영적인 계시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여 기독교에서는 예수 수난의 현의를 표현하는 데 쓰였으며, 부활절, 특히 회색의 수요일과 성 토요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보라 역시 예부터 서양에서 신성하고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헤브루의 성직자들은 보라색 성복을 입었고 초기 기독교 성직자들도 보라색 성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도 보라색 의복을 입었으며, 솔로몬의 마차와 클레오파트라의 배도 보라색이었다. 이처럼 보라는 신의 뜻을 대행하는 성스러운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선택받은 색이었다.

한편, 자주는 탐미적인 생활을 의미하므로 허식의 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선호하는 색상의 꽃을 통해서도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열은 자주색의 라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화려함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정열적이고 활발하며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부심이 강하고 멋내기를 좋아하므로 항상 생기 발랄한 매력을 유지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경향이 있다. 색채 심리학자들은 옛사람들의 보라에 대한 숭상을 빨강과 파랑의 중간색적 특성 때문이



라고 해석한다. 빨강과 파랑은 색상환에서 서로 보색으로서 몸과 감정에 대한 작용이나 상징적 의미에서 정반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라색은 이 두 색이 혼합된 색으로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영성(靈性)을 상징한다. 즉 보라는 하늘의 상징인 파란색과 인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강이 섞인 중간색이므로 영적으로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의 존엄한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는 색이라고

본 것이다.

violet & purple

- ‘보라(violet)’
제비꽃과 같이 선명한 ‘청자색(靑紫色)’을 가리키는 색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보라’로 칭한다. 남색과 자주색의 중간색
- ‘자주(purple)’
가시광선의 7가지 스펙트럼색에서의 보라색이다. 보라와 구분하자면 ‘자주빛에 가까운 보라색’이다.

보라계열이 지닌 의미

긍정적 (positive)	부정적 (negative)
고귀	오만
중요	독재
이타주의	무자비
공정	기만
신비적	속물근성



카리스마의 절정 '검정'과 '하양'

검정과 하양의 상징성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색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한결 이해하기 쉽다. 두 색의 대비를 통해 각각의 색이 가진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컨대 하양은 검정 이외의 모든 것이고, 검정은 백색 이외의 모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양과 검정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을 상징하지만 하양과 검정의 대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고대 중국, 음악의 상징인 태극도이다. 태극의 그림에서 하양은 남성적인 양을 의미하며 뜨거움과 적극성, 밝음을 표현한다. 반면 검정은 여성적인 음을 의미하며 차가움과 수동성, 어둠을 표현한다. 한편 서구에서는 검정과 하양에 점술적인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단지 밤과 낮을 상



징한다고 본다. 하양은 기쁨, 순수함을 상징한다. 하양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미덕과 봉사의 승고함, 성스러움, 평화, 희망,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색이다. 이는 하양이 위협적이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깨끗하고 참신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나 과학자, 상담자, 서비스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색이다. 또 하양은 모든 색광을 반사하는 본연의 성질과 결부되어 청결함과 순수성, 향상심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하양이 주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은 동양권에서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하양은 전통적으로 죽음과 애도를 상징한다. 일상생활에서 얼굴에 핏기가 없고 안색이 창백하면 건강 상태가 극히 나쁘다고 여기며, 타인에게 따분하고 정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반면에 서구 문화에서는 하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다. 검정의 이미지는 생활 속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방어'를 나타내고, 패션계에서는 냉정하고 세련된 기품을, 자동차나 현대 실내장식에서는 세련된 사치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죽음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장례식을 연상시키고, 어둠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순수하게 장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정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 검정이 들어가는 언어적 표현 역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경우가 많은데,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는 속담은 사람이 오히려 짐승보다 더 은혜를 모름을 비유해서 나타낸 말이다.

또 서양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집안의 골칫거리나 말쑥꾼'을 'black sheep of the family'로 표현한다. 이 외에 블랙리스트(black list, 요주의 인물), 블랙 메일(black mail, 갈취한 돈, 공갈)의 표현도 있다. 색채학에서는 검정과 하양을 색상이나 채도가 없고 명도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채색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두 색의 배색은 다른 어떤 유채색들을 배색한 것보다도 더 뚜렷한 대조를 이루므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아주 적합하여 배색에 자주 이용된다.



도회적 지성 '회색'을 입다



하양과 검정의 혼색인 회색은 하양과 검정, 양과 음의 중간에 있는 색으로 상반되는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회색은 의식과 무의식을 중개하는 다리로서 긍정 및 부정 양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회색은 새로운 변화를 자진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이 의식의 밑바탕까지 다다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뇌의 회백질을 연상시켜 지혜와 지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재해나 사고의 여파, 먼지와 거미집, 탄연료나 재를 상징하는 색이어서 정리가 안 됨, 사고나 혼란, 불명확함, 괴로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회색은 새로운 변화를 자진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이 의식의 밑바탕까지 다다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늘 중립적인 회색을 몸에 걸치고 있거나 몸 주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외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심신의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평온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또 회색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억눌림 또는 신경쇠약을 의심하게 하며, 자존심의 결핍과 자신이 범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있다. 이처럼 회색은 심적으로 비교적 어두운 느낌을 많이 주지만 '중간색(neutral)'으로서 밝은 이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밝은 회색은 인격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의식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일반적인 회색과 달리 색채 치료에 사용된다. '중간 회색(medium gray)'은 겸허를 나타냄과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승려복이 회색인 이유는 쪽풀을 이용한 염색 과정에서 질푸른 남색 빛갈이 덜 착색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그 빛갈은 따뜻하고 평온하며 비공격성과 무한함을 나타낸다. 회색은 흐릿한 이미지 때문에 정치적·사상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회색은 유일하게 완전한 중간색이지만 회색을 탄생시킨 양극의 색처럼 색상환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색(shadow color)'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대체로 회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쓸쓸함과 어둠이며, 때로는 탁



한 도시의 이미지, 회색의 하늘 같은 우울함, 공업화, 뚜렷하지 않은 그늘, 따분함과 연결되어 '주장이 없는 색'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회색은 물리적 해석으로는 하양과 검정과 같이 색이 없는 무채색이므로 패션, 인테리어, 포장 등 디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으로 각광받고 있다. 📖

회색이 지닌 의미

긍정적 (positive)	존경	현실적	신비적	수용적	심령의	조심스러운
부정적 (negative)	음울	지루함	의기소침	위축	배신	관료적